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교회 설립 16주년 · 추수감사절 메시지

감사와 기쁨으로

Thanksgiving Greetings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오늘은 우리 서울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일이면서 2007년도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임직식과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실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일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쉽게 간과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을 주시듯 건강과 가정과 친구와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 절기에 잊기 쉬운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곧 잊어버린 하나님의 특별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은총은 현재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의 대상임을 내가 항상 알게 될 것이니 내가 지금 너를 위해 구원을 행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곧 잊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전율합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지난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신다면서 불신앙에 빠져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별은총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은총을 슬프게도 무시 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여기서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도 교회도 없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평초와 같이 허공으로 날라가 공중분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더 큰 감사를 드러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도 추수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었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케 하시며 뿐만 아니라 아들과 성령으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해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시심을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교회설립 16주년 축하메시지

기쁨 중 더 큰 기쁨으로



왕형택 목사 (경북제일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신앙인에게 가장 멋진 축복입니다. 신앙인의 방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흔적을 가진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흘린 땀의 자국보다, 우리가 달려온 전력질주의 열매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7년 동안 그 은혜의 궤적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 서울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던 그 처음부터 그분의 손길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 일구어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해 온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그분의 축복의 자국들이

니다.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로 주변을 살리는 교회의 꿈을 꾸면서 17년 동안 이종윤 목사님과 함께 달려온 아름다운 질주였습니다. 이제 17년 만이 아니라 60년을, 아니 육백년까지라도 달려 갈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전보다 더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자 되신 우리의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름으로 16주년을 맞이한 서울교회에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서울교회를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기숙 장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서울의 심장부 서울교회는 17년 전 사선을 넘어 무릎으로 달려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즈음처럼 내적으로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는 신앙의 영향력을 점점 상실한 이때에 신선한 충격으로 교계의 잠을 깨우며 이 시대, 이 민족의 유로골목가 지나갈 때마다 밤 낮 없이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앞장서는 서울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기독교 문화사역과, 민족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세미나, 세계 열방을 향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서울교회의 선교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130만 선교여성들도 서울교회

의 모범적인 창조사역을 본받아 민족의 파수꾼, 대한민국의 기독 여성으로서 분연히 일어나 겨자씨와 같은 헌신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신앙의 어머니들로서 한 번 거듭나기를 다짐해 봅니다.

어둡고 절망이 있는 곳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민족을 깨우고 생명을 잉태하여 다음 세대를 품는 교단 총회의 가장 뛰어난 리더십이 발휘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으로 오고 오는 후손들 위에 세세토록 아름다운 전설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며 기쁨 중에 더 큰 기쁨으로 감사중에 더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울교회 설립 16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임장로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글

충성, 또 충성 하십시오



이영선 장로(원로장로) 박순봉 권사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섭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적 교회로 세움을 입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전에서 이갑진, 하인선 두 분 장로님께서 시무케 된 것을 축하하며 성 당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하나님의 목회에 선배장로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로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1-4)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앞세우지 마시고 내 판단이 주님의 뜻을 가리는 일 없이 내 모든 것을 주님 면전에 남김없이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몸 바쳐 헌신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목사님과 선배 장로 그리고 온 성도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이해받으

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이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서울교회가 훈훈한 사랑의 도가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두 분 장로님께서 작은 불씨가 되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은 장로 장립을 받을 때 당회원으로서 말씀 안에서 절대 순종하자, 고집 부리지 말고 양보하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겠다는 평범한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으나 실천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실족케 하려고 유혹하거나 격한 감정이 엄습하여 자제력을 상실할 때 순간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속의 은총에 감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초심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회고해보면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시무장로의 반열에 오르시는 두 분 장로께서는 은퇴하시는 그 시점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충성 또 충성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장로 임직을 받으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갑진 장로
박우주 권사

**장로로 세움 받게 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자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근신하라는 경계의 표징
을 함께 하는 것이라 믿
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저에게 서울교회 시무장로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의 많은 허물과 미숙함을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이종운 목사님, 교역자와 장로님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택장로 교육을 받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군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살아 온 지난 10년의 세월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매주의 배움을 통하여 서울교회 시무장로로서 영적인 성숙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신약적 도전을 받게 하였습니다. 장로로 세움 받게 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자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근신하라는 경계의 표징을 함께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교만해 지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앞세움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 터득된 “이끄는 리더십”을 경계하고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섬기는 리더십”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는 잘못된 습성을 경계하고 “기도하고 계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서울교회의 창립정신을 잘 이어 받아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충성된 일꾼이 되고 한 알의 죽은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직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신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절기를 따라 세움 받는 또한 사람의 장로가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과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5:19)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웁니다. 이 순종의 마음으로 장로 된 남편을 섬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군인의 아내가 되어 나라의 일이 가정의 일에 앞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 남편 없는 가정을 꾸리는데 훈련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울교회 시무장로 된 남편으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모든 것에 우선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임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일을 위해 범사에 순종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군에서 전역하여 서울교회에 신앙생활의 닦을 내리게 하시고 장로와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아들 내외들 역시 스스로의 결단으로 서울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서울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족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에 빛진 자들이 되었으니 같은 사랑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고향교회의 어느 장로님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새벽마다 교회에 가면 고향 떠나 객지에 나가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셨고 교회를 지키고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 타 지역의 진출을 거부하여 교장으로 진급도 못하고 교감으로 정년퇴임하셨습니다. 그 분이 계셨기에 시골교회 새벽제단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셨기에 독립교회로 성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담임목사님도 15년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것을 볼때 장로님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장로서 말씀 배우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또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제가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뿐입니다.

겸손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기도에 힘쓰며 열심히 배워서 전하기에 힘쓰며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목회방침을 잘 받들고 서울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장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

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셔서 서울교회에서 남편이 장로로 임직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중학교1학년때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 7남매 중 4명의 장로와 4명이 권사가 되었습니다. 결혼 30년, 그 동안 힘들고 어렵던 시절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선물로 주신 3남매도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착하고 충성된 섬김의 종으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에 감사하며 더욱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 파송 받으며

서울교회여, 아시아

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서울교회 파송선교사가 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9월에 부임하여 3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종윤 위임복사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하여 진리와 깊이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말씀과 삶이 일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많은 도전을 받았습

니다. 이 기간 동안 목회자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자로서의 리더쉽과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었으며, 세계 선교대학을 수료하여 선교자의 자질과 비전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선교사의 거룩한 사명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이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갈 때에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힘차게 담대히 가겠습니다.

부목사님들과 함께 목회활동과 심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위임복사님과 당 회원 그리고 성도님들, 특히 선교위원 모든 분들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소망과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굳게 믿으며 성령님께서 인도와 역사해 주심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큰 비전을 품고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그곳은 많은 우상과 미신, 음란과 어두움의 무리들, 악한 영들과 사단의 역사가 강하며, 무엇보다 차별과 불평등인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병



우상식 · 김정옥 선교사(인도)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인도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물리치고 참 빛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마, 가난과 무지,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들이 많습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지만 주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가서 주님의 모습을 그 땅에서 재현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듯 인도인을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인도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물리치고 참 빛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인도인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도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 가 족 : 우하은(장녀), 우성은(차녀), 우고은(삼녀)
- 선교활동 : 1. 교회개척 사역(복음화와 제자화)
2. 어린이 사역(지도자 양성)
3. 희망의 집(고아와 과부 사역)

기도제목

1.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무너져서 평등한 살롬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2. 교회개척 사역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3. 어린이들이 양육을 잘 받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4.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희망의 집이 건립되게 하소서!
5.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러시아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울교회 선교사훈련생으로 처음 인사드릴 때가 었 그제 같은데 벌써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서먹서먹하던 관계들이 이제는 헤어질 것을 아쉬워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윤 목사님과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일해오신 장로님들과 관사님들의 섬김이 저희 선교사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져왔으며,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서울교회 설립시절의 아픔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때엔 저절로 손이 불끈 쥐어지며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한 종이 되리라는 다짐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기도의 후원자로 자원해주시며 저희를 어린 생명을 보듯 귀하게 여겨 주시고 사랑과 나눔의 본을 보여주신 다락방식구들과 모든 성도님들에



김명호 · 서향정 선교사(러시아)

주님의 사랑이 러시아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빛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리라

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서울교회 파송선교사로서 모든 열정과 사랑을 러시아의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온가족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는 서울교회 모토성구를 붙잡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에 부응하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를 세우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러시아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빛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좋은 우리 서울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주실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신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를 넘어 세계로 비상하라!

이스라엘

살롬.

저희는 이번에 서울교회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Jay, Keum Kronish 부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종운 위임목사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부부는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Jay 선교사는 미국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유대인 사역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이민을 결정하고 2006년 8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습니다.



제이크로니쉬 · 금원 크로니쉬 선교사(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인구는 칠백만 명으로 1% 정도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우리가 일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것을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것을 소원합니다

캄보디아

청년의 때에 품었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헌신하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주님께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오늘날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적지 않은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체험하였습니다. 드디어 선교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주셨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사작'을 감당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지난 10년간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목사로서 한국교회 현장에서 훈련받으면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교회를 만나게 하시길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만나니 제 마음이 시원하였습니다. 서울 교회와의 만남은 제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자 또한 한국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깊은 사랑과 기꺼이 비전을 감당하게 하심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교회에서 받았던 훈련의 시간은 지난 20년만의 기도의 응답이며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기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사모하며 캄보디아로 향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꿈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비전을 가지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캄보디아로 향하게 되니 행복합니다. 선교사 파송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충만히 누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진아 선교사 (캄보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우리 교회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존경하옵는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모든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시간들은 많은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서울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만났니 행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홀로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임목사님, 부교역자님들, 아름답게 충성하시는 장로님들과 기도의 어머니이신 권사님들의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함께 가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도 캄보디아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의 빛 진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며 주님의 동역자로서 행복하며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캄보디아의 선교의 사명을 우리교회와 함께 완수할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가 킬링 필드의 땅이 아니라 리빙 필드로 회복되고 거듭날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기다리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먼저 계셔서 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시는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성육신적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교회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캄보디아의 기쁨으로 서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민에게 전도-선교 보고

Killing Field를 Living Field로...

Thaung Ngeih Mang 선교사(미얀마)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선교의 열풍이 일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Thaung Ngeih Mang 선교사를 비롯하여 총 5명의 선교사가 사역 중이다. 이들은 사역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어 새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Zuzana 교회(Thaung Ngeih Mang 선교사)는 세례교인 35명, 비세례교인 25명, 총 60명, S/Dagon(2) 교회(Lay Hnin)는 세례교인 20명, 비세례교인 26명으로 총 46명, North Okkalapa 교회(Cin Swan Mung)는 세례교인 15명, 비세례교인 16명으로 총 31명, Insein(2) 교회는 세례교인 35명, 비세례교인 6명으로 총 41명, Shwepyitha 교회(Ko Tin)는 세례교인 7명, 비세례교인 2명으로 총 9명의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여 위의 다섯 교회를 합하면 세례교인 112명, 비세례교인 75명 총 187명의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진력을 하고 있는 우리교회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우리교회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조남예 선교사(방글라데시)

교회와 성도님들께 방글라데시에서 안부를 올리며 더불어 기도제목은 보냅니다.

방글라데시는 91년 이후 16년만에 온 태풍과 해일로 온 나라가 물난리로 아비규환입니다. 북쪽은 조금 덜하지만 남쪽지역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주민등록이 없어서 정확한 인명사고의 숫자 파악이 어렵지만 사망인원이 3100명 정도이고 실종자를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들 가족의 울부짖음과 아직 치우지 못한 시체들로 이 땅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해 주시고 이 일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주시기를

-정부와 엔지오 민간단체들이 지혜롭게 피해자들을 돕도록(많은 나라에서 많은 원조가 들어올 것인데 그 원조들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정말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도록)

-빈민들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저희 선교사들이 이 일을 어떻게 도와야할지 지혜를 주시도록.

아울러 야사(소망)호스텔 기도제목 올립니다.

*호스텔 매니저를 드디어 바꿨습니다.

주엘은 정식으로 그만 두도록 했고 로즈를 형제를 새로 뽑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로즈를 형제의 형수가 한국 선교사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 지면서 감기로 아이들이 고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과 학교 다니는 길과 호스텔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 세요

-다음달까지 새로 들어올 아이들 하나님께서 잘 뽑도록 지혜 주시도록...

-호스텔 아이들 어머니 미팅시간에 드리는 예배시간에 어머니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호스텔을 돕는자리에 서도록 ...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이웃사랑회 일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야사 호스텔과 여성사랑(여성 가정교회)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새로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어려움 없이 손조롭게 비자 받아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비자위해 기도해주시시오.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주님이 이 땅 방글라데시를 사랑하심을 믿고 후원과 기도로 돕는 서울교회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재율 선교사(캄보디아)

우리교회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파송한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정부군과 크메르루주와의 전투와 계속된 내전으로 수많은 상이군인이 발생하여 정부는 이들을 모아 부대를 조직 관리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는 지난 4월11일 부활절 기간에 캄보디아 기독 장군 몇 명과 상이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전투 중 양 눈과 양 팔, 양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들을 만난 바 있다. 그 동안 그들을 불쌍히 여기

며 기도하던 중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이며,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군 사역의 중요한 분야로 판단되어 상이군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열기로 하였다.

이 성탄절 행사는 캄보디아 마하니미 선교센터(이재율 선교사 설립) 주관으로 12월20일(목) 오전 9시 캄보디아 상이군 사령부에서 열리며 부대에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인 및 가족들 약 250가정, 8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성탄절 행사는 현지에서 의료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현지인 사역자의 교회팀에 의한 캐롤송 등 찬양의 시간을 갖고 성탄에 대한 메

시지를 전하고 성극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준비한 선물(가정 당 쌀 20Kg 한 자루, 어린이 1명당 노트 5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상이군인과 가족에게 성탄선물을 통해 복음증거를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에 동참할 성도들은 12월 첫째 주일까지 특별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증거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교회설립 16주년 기념 축시

감사 감사 감사

교회설립 16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예식 -

제9대 장로임직 · 협동권사 취임 · 2007후반기 선교사 파송

- 찬양예배 시간에 -

해지는 곳에서 해뜨는 곳까지

한상준 집사(11교구)

일곱 축대 높이 세우고
주님 명령 따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두가 사명자 되어
뜨겁게 더 뜨겁게
불 붙이게 하소서

새벽을 향하여
춤 어둔 바닷
가난한 마음 두 손 모아
시린 무릎 위에
반석으로 세워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삶의 아픔과 고통에
지치고 햇빛은 영혼들
십자가 보혈로
복음의 빛 천란히 비추어
어두운 세상
등대되게 하소서

한 생명 위해
눈물의 기도
아픔과 상처는 감싸주고
생명의 양식으로 보듬어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하늘 문 여는 용사되게 하소서

서울교회여!



감사 감사 감사 만 번을 거듭해도 다할 수 없는 감사의 주일이다. 주님의 인도로 서울교회를 설립하고 크고 작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오늘을 교회설립 16년을 감사하는 축제의 날로 허락 받았다.

이 큰 감사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또한 교회설립 16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지킨다. 주님 앞에 아무 것도 보여드릴 것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소출을 허락 하심을 감사하고 주일예배 시간에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지난 5월 피택되어 교육을 받아 오던 두 분의 피택장로(이갑진, 하인선)가 서울교회 시무장로로 임직하게 된다.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된 사명을 받은 교회로 100 명이상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고 진력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7년 하반기 선교사를 파송한다.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이상식 김정옥 선교사(인도),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러시아), 제이 크로니쉬 금민 크로니쉬 선교사(이스라엘), 박진아 선교사(캄보디아), 김태식

선교사(군파송 선교사)로 총 여덟 분이다. 이들은 오로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된다.

또한 협동권사로 여섯 분이 취임하게 된다. 이들은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본인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권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신 분들로 본인의 신앙을 격려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효과적으로 물려 줄 수 있도록 협동권사의 직분을 드리게 된다. 협동권사로 취임하게 되는 분들은 문순례, 이윤영2, 이원희1, 정애신, 정경월, 원명희 성도 여섯 분이다. 오늘 저녁예배 시 바치는 헌금은 전액 실로암 안과 병원에 보내져 개안수술 비용으로 쓰여질 것이다.

오늘 안수를 받고 장로로 취임하는 두 분 피택장로와 여덟 분 선교사, 여섯 분 협동권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믿음의 덕을 세우고 사역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

-복음화 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하여-

12월6일(목) 오전10시 서울교회 본당에서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탄원하는 금식기도대회가 12월6일(목) 오전 10시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가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교회와 국가를 지키며 우리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 하려고 몸부림쳐왔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거짓평화 공세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원색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미동맹은 점점 와해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중국 내 탈북자들을 전원 색출

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키로 하는 등 국내의 정세는 계속 어두운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는 금년 12월 대선과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더 이상 좌파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나, 장로들과 여전도회 및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허리를 졸라매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받고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의 70인 목회자회의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2008년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모집

농어촌교회 목회자 최저 생활비 보조

2008년도에도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은 본 교단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따라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조하는 일을 협력하고 있다. 교회 내의 개인, 가정, 기관, 단체는 약정된 구좌(1구좌:

월10만원, 1/2구좌:월5만원)를 후원함으로써 미자립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히 후원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하여 후원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며 전도위원회에서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